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8. 20.(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박종일 위원,
이지호 위원, 김대희 위원, 최태민 위원(이상 11인)

□ 불참위원 : 박배연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이상 3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이상 5인)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경남 거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극심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재난이 닥친 뒤 상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위험한 곳은 없는지, 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미리 살피고 알려드리는 일 역시 지역방송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지역민의 일상과 안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대표이사

해마다 여름을 맞고 있지만 올해처럼 힘든 여름도 드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다음 해에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아직 더위가 한두 차례 더 올 수 있으니 끝까지 건강관리를 잘하시면서 여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신 편성제작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

8월 주요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 TV는 「어바웃 우리동네」, 「트로트클라쓰」, 「전국시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트로트클라쓰」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공개홀에서 녹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는 「라디오전망대」, 「신나는 오후」, 「음악식당」 등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MBC 8개사가 공동 제작한 「한국의 둘레길」에 여수MBC는 금오도 비렁길 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방송됐고, 이후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 「탐나는 TV」에서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역에서 제작한 좋은 콘텐츠 사례로 소개하면서 특히 금오도 비렁길 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에 맞춰 지난해 23분 분량으로 제작했던 금오도 비렁길 편을 1시간 분량의 특집으로 확대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추가 촬영을 진행했고, 9월 3일 오후 9시대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D-30을 맞아 기존에 제작한 섬 관련 콘텐츠를 특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33편을 연속 편성하고 있으며, 개막 전날인 9월 4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작한 「1948 그녀들」도 수상 소식이 있습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에 열리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MBC에서 시상식을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제16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선은 9월 12일 여수 MBC 공개홀에서 진행하고, 본선은 9월 19일 여수 해양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에서 의견 주셨던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균형발전 관련 보도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은 「라디오전망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국립의대 문제 역시 뉴스브리핑과 「정치한판」, 인터뷰 등을 통해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과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관련 내용도 다뤘으며, 기후위기·생태문명·자연환경 관련 보도와 영상콘텐츠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이슈체크」, 인터뷰 등을 통해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어바웃 우리동네」에서도 섬의 날을 비롯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의견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보도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센터 8월 주요 취재내용과 9월 운영 방향,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크게 폭염, 전남 국립의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사건·사고 분야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취재했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과 농축산물 피해, 수온 상승에 따른 가두리 양식장 피해 등 산업현장의 피해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양 지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직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MBC에서는 이 과정에서 동부권의 정서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는 여수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문제, 지역 항·포구의 준비상황, 섬의 날 행사 등 손님맞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사건·사고 분야에서는 젊은 기자들이 단순한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야 음주운전 사고, KTX 운행 중 폭염 속에서 장시간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건, 경찰 간부의 사건 개입 의혹, 촉법소년 범행 등을 취재·보도했습니다.

9월에는 무엇보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9월 5일 개막 당일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메인 뉴스를 특별 생방송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의미와 교통 종합대책, 주요 전시관의 관람 포인트, 섬 방문 연계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행사 운영 과정에서 편의시설이나 셔틀버스 운행 등 관람객 불편사항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열리는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비롯한 가을철 지역 축제와 문화 현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수급과 전통시장 물가, 여수·순천·광양지역 민생경제 대책, 응급의료체계와 교통대책, 재난 대응태세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동부권 균형발전 관점의 보도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립의대 문제와 조직개편, 산업체 유치 등에서 동부권 민심이 크게 부각된 만큼 지역민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국립의대 문제를 취재하면서 동부권의 정서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의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국제선 운항 차질과 행사 준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고, 여수산단 사업재편과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 등을 취재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페셜티 분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보도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사항으로는 「뉴스투데이」의 「이슈 프리뷰」에서 섬박람회 잔여기간을 채널버그와 자막에서 각각 다르게 표시해 혼동 우려가 있다는 개선게도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향후 제작 시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 주요 업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10월 말까지 여수 일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광복절 특별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행사 이후에 비가 많이 내려 특별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6 정채봉문학상은 8월부터 1차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까지 최종 심사를 진행해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이후 관련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을 개최합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 작품이고, 서울 공연과 비교해서도 티켓 가격을 높이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료 공연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과거 대형공연처럼 빠르게 매진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예매가 나쁘지는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잘 준비해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지만 매년 진행하는 청소년봉사상도 9월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접수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올해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구성하려 합니다. 광양 LF스퀘어 영화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일반 시민도 초청해 영화 관람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8월이 주요 성수기입니다. 최근 주요 작품들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고, CGV 광양 LF스퀘어점도 주말을 중심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TV·라디오 프로그램 시청·청취 소감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애숙 위원

먼저 「1948 그녀들」의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출범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혼란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립의대 문제도 매우 뜨거웠는데, 보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여수MBC의 역할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지역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 문제입니다. 최근 재활용 수거차량에 ‘다시 태어나려 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어디로 이동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중앙방송 등을 통해 페플라스틱 등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본 적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재활용품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소개한다면 시민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행정적·경제적 손실까지 함께 알려준다면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COP33 유치와 지역 불꽃행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본질인데, 한편으로 오동도 일원에서는 선상 불꽃쇼가 열리고 매년 대규모 불꽃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꽃행사의 탄소 배출이나 미세먼지, 화학물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드론쇼나 친환경 미디어 방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논의되는 해상경정장 문제입니다. 경정은 베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해양환경과 생태계, 소음 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지향하는 섬·바다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친환경·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연 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여러 행정과 정책 기능이 광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동부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호남권에는 광주MBC와 목포MBC, 여수MBC가 각각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시청자들이 주로 해당 권역 방송을 접하다 보니 지역별 문제의식이 그 지역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에서는 균형발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광주나 서부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별 상황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호남권 지역방송 간에도 관련 보도나 콘텐츠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통합은 이미 시작됐고 실제 제도와 행정의 통합은 앞으로 상당 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통합 자체의 찬반보다는 당초 제시된 주요 공약과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도 주요 정책과 공약의 진행상황을 일회성 보도로만 다루기보다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쌓이면 향후 통합이 당초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동부권에서는 산업 변화와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행정 기능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지역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을 평가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뿐 아니라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 청년들의 지역 정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구나 산업 관련 지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을 데이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폭염이나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상황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의 준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인수 위원

저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이 여수·순천·광양지역에서 발생한다면 국가산단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여수MBC가 그동안 폭염이나 기후위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시기적절하게 보도한 점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연재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 침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고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이유로 계획이 제때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자연재해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어떤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그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산단 사업재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업재편 1호가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재편 과정에는 기업 간 협의뿐 아니라 인허가와 행정절차, 직원 고용, 협력업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재편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이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에서 여수시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 여러 사업 사례를 보면 실제 집행 단계까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수MBC에서도 그동안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인허가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은 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위원

이번 여름이 앞으로 맞게 될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후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948 그녀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여순사건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을 다뤘다는 점에서 저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바웃 우리동네」도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런 일상적인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영암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축제를 소개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여수·순천·광양만 소개하기보다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 보도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검·경 수사권과 같은 제도 변화는 일반 시민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경찰 수사

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만큼 제도 변화가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주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문제를 지역 의료현장과 연결해 다룬 보도도 좋았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실제 현장 취재와 연결해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순사건지원단의 위상 약화 문제를 다룬 보도는 관련 발언을 전달하는 데 그쳐,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시청자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련자의 인터뷰나 배경 설명 등이 조금 더해졌다면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농업·농촌 문제 등을 타 지역 뉴스로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현장을 보다 많이 보여주고, 타 지역 뉴스는 우리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방소멸 시대에 광역단위 행정통합뿐 아니라 여수·순천·광양처럼 생활권을 함께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계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의 통합만 추진되기보다 작은 단위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지역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최근 섬의 음식과 삶을 다룬 프로그램을 좋게 봤습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왜 섬박람회를 개최하는지, 이 행사를 통해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가 충분히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섬들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광객이 섬에서 무엇을 보고 먹고 느낄 수 있는지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섬박람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상황도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말에 평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동부권이 갖는 의미와 지역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메시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대 문제는 현재의 지역 갈등만 보여주기보다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어졌는지 과정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대가 설립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언제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최근 가뭄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우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후변화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자연의 복수’와 같은 표현을 비롯해 대부분 매우 암울한 이야기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안과 희망을 함께 담아내는 언어나 접근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순천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생태공론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입장뿐 아니라 자연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마을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공론장을 진행해 보았는데,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재난과 위기의 관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의 노력이나 공동체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모습 등도 함께 소개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은 위원

저는 세 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지역 뉴스를 모니터링하는데 여수MBC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뉴스 제목을 비교적 온건하게 사용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 방송에서는 광주와 무안 조직 축소, 동부권 조직 확대를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반면 여수MBC는 비교적 중립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객관성과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동부권의 이해가 크게 걸린 현안에서는 지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제목이나 보도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국립의대 문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 관련 보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폭염이나 폭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환경 문제를 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수시 SNS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박람회장 사전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내부 전시 콘텐츠를 비롯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기간이 상당히 긴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큰데, 현재의 준비 상태가 그 기대에 충분히 미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사장 내부 콘텐츠와 운영 준비 상황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일 위원

최근 대규모 공연을 관람한 뒤 주차장에서 큰 혼잡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차량을 안내하는 진행요원이 충분하지 않아 먼저 나온 차량과 나중에 나온 차량의 출차시간이 한 시간 이상 차이날 정도였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공연이나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차와 출차, 진행요원 배치 같은 부대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준비할 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현황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철강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광양제철소 자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철강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역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철강생산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중국의 공급정책 변화와 과잉생산 문제 등이 앞으로도 글로벌 철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세계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다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노사관계와 관련해 현재 특별한 갈등 요인은 없으나, 파업과 관련하여 9월 초 관련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다음은 이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호 위원

먼저 전남도립미술관의 명칭이 ‘전남미술관’으로 변경됐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수MBC 보도 덕분에 최근 휴가철을 맞아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었

습니다. 주말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문화예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시 체제에서 전남권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설계될지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통합시의 문화예술정책, 특히 전남권의 문화예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김대희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약 100GW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약 41GW 정도이고, 이 가운데 태양광이 약 30GW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3~4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태양광을 더 확대하거나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현재 계통연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RE100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 설비가 약 2GW 정도이고, 그 가운데 해상풍력은 약 0.6GW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권에는 약 12GW, 동부권에도 약 9GW 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발전설비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전력계통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해상풍력 발전전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도 동부권의 계통연계망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는다면 RE100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기업들이 수소에너지나 그린수소를 활용하고 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결국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 전력수급계획이 광주지역 반도체산업 유치에 필요한 전력 공급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의

기존 산업수요와 향후 해상풍력 연계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MBC에서도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RE100,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 계통 문제를 서로 연계해 관심 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폭염과 폭우가 심해질수록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 역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각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농업과 수산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 동부권의 공공행정 기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동부청사의 인력 규모가 약 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권에서는 기능을 더욱 확대해 5~6개 국 정도가 배치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700~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부청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지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동부권에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부지가 충분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학 주변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동부청사의 추가 조직과 관련 출자·출연기관, 이전 공공기관, 대학병원 등 여러 공공기능을 유치하려면 미리 공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이 각각 유치 경쟁을 하기보다 세 지역이 공동으로 접근해 약 30만 평 정도 규모의 공공행정·혁신지구를 미리 조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순천과 울촌 일원처럼 여수·순천·광양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KTX역과 공항 등 광역교통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공공행정 기능을 수용할 기반을 마련한다면 동부청사 기능 확대뿐 아니라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을 동부권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와 기반을 지역에서 먼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남 동부권 전체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행정·혁신지구 조성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해상경정장 문제입니다.

과거 순천에서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 화상경마장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 전체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사행산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정 역시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스포츠토토 등과 함께 사행산업의 범주에서

다뤄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설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은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지역의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상경정장과 같은 사행산업 유치 논의가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행산업이 지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이나 도박중독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순천 화상경마장 문제 당시 지역사회가 어떤 논쟁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 정리됐는지를 다시 살펴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상경정장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MBC에서도 이미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지역사회의 사례와 현재의 논의를 연결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민 위원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까 「한국의 둘레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보고 실제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 등을 찾아봤는데 여수MBC 채널에는 예고편만 있고 본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

당초 프로그램이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작돼 지역MBC 8개사 모두 유튜브에 본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작사끼리 협의해 각 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각 사 유튜브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수MBC는 9월 3일 1시간짜리 금오도 비렁길 특집을 먼저 방송한 뒤 지난해 제작한 23분 분량의 프로그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9월 3일 이후에는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태민 위원

공개된다고 하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자료를 보면서 CGV 광양 LF스퀘어점을 여수MBC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오디세이 영화를 아이맥스로 관람하면서 지역의 영화관 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제대로 된 대형 특별상영관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에도 제대로 된 아이맥스 특별관이 확대된다면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CGV 광양 LF스퀘어점에도 현실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아이맥스 상영관은 CGV 직영점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CGV 광양 LF스퀘어점은 여수MBC가 CGV 브랜드를 사용해 위탁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탁점에는 아이맥스 상영관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존에 광주 유스퀘어에 아이맥스관이 있었는데 현재 없어지면서 광주지역 관람객들도 순천 신대지역 상영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태민 위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전남 동부권에도 제대로 된 아이맥스 특별상영관이 생긴다면 순천에서 추진하는 콘텐츠·애니메이션산업과도 연계해 지역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대표이사

오디세이는 영화는 영상뿐 아니라 음악도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맥스와 별개로 돌비 음향시스템을 선호해 같은 영화를 여러 상영관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CGV 광양 LF스퀘어점도 음향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아까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MBC 화면에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수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절차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자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시청자들이 여수MBC 재

허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제한되는 만큼 여수·순천·광양지역의 준비상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균형발전과 지역 간 갈등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문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목적과 의미를 지역민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부청사 기능 확대와 시설 확충, 전남 동부권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전략, 사행산업 관련 의견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여수·순천·광양지역이 함께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관광시설에서 세 지역 주민이 함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대중교통 환승이나 요금체계를 조금씩 연계하는 방식처럼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MBC도 여수·순천·광양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표이사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셨지만, 지역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도와 제작에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검토해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와 관련해 일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은 위원님께서 동부권 현안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부권과 서부권처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일수록 언론은 표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별시 조직개편 보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동부청사 조직이 대폭 강화됐다’고 표현하면 현재의 개편으로 동부권이 충분한 기능과 권한

을 확보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수MBC는 조직이 일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부여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이해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국립의대 문제 역시 지역 간 갈등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언론이 갈등을 확대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보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콘텐츠와 준비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도 취재진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막이 임박한 국제행사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 생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보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경정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순천지역에서 화상경마장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당시의 자료와 사례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취재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수MBC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청자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이 앞으로 여수MBC의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